경실련,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촉구

—「양축농가 숙원정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지난 5월 16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배합사료·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중앙대 김성훈 교수(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중앙대 윤석원 교수가 "양축농가 정책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농림수산부 김남철 과장, 재무부 김낙회 사무관, 양돈협회 노영한 전무, 낙농육우협회 김인식 부장, 양계협회 김용화 부장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언론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윤석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양축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중의 하나는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과 수입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축농가의 숙원사업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약속까지 했었고, 그 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친 대정부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600만 대다수 농민(양축농가)의 대정부 불만을 고조시키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대농민공약을 수행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문민정부의 권위 및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UR 이후 가장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양축농가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 회복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도 영세율 적용 및 관세의 감면은 배합사료 가격의 10.31% 인하효과가 있으며, 이는 결국 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져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농림수산부 김남철 과장은 양축농가의 사육규모가 영세하고, 환경문제로 인한 축산오폐수 처리비용은 생산비에 포함되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가세 영세율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김인식 낙농육우협회 부장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없

이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며, 대책은 어떻게 세운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부가세 영세율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정책적 도덕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영한 대한양돈협회 전무도 13년간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온 사항이며, 여야대표와 국민모두가 합의한 만큼 축산농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정부가 농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쉽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세부내용 본지 54쪽 참조〉

가축위생학회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 개최

한국 가축위생학회 제17차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가 4월 20~21일 제주도 축산진흥원 주관으로 제주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농림수산부장관의 연구상 2명과 학회장상 1명이 수상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현 한국유질 유방염연구회장이며 충남대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인천시 가축위생시험소장 손봉환 박사를 회장에, 부회장에는 전남 가축위생시험소 이성회 소장,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영동지소 김동훈 소장이 선임되었다.

또한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있은 '95년도 학술발표에서는 28개 연제와 강원, 경기 광견병 발생 및 경남, 경주 탄저발생 보고, 그리고 유럽 가축위생시찰 결과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중 양돈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90~'93년도 서울지역에 출하된 돼지의 오제스키병 감염실태 ▲돼지에서 Actinobacillus pieuropneumoniae의 혈청학적 진단법에 대한 연구 ▲전북지방 톱밥발효돈사 사육돈의 내부기생충 감염조사 ▲소, 돼지 도축지육표면의 세균분포조사 ▲강원 동해안지역 돼지폐렴에서 분리한 Pasteurella muitocida에 대한 조사 ▲도축돈의 장내용물과 우유에서 살모넬라속균의 분포조사 등이 발표되었다.

한국 가축위생학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 회원학회이며, 회원은 약 600명으로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가입희망자는 소정의 입회 수속을 받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육류등급제 기준개정(안) 건의

-고품질 규격품 생산과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을 위해

축산시험장은 농림수산부에서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육류등급제를 한우는 생체중 450kg, 돼지는 90kg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정함으로써 고품질 규격품 생산과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을 위하여 육류등급제 기준의 개정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여 육류등급제 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94년 5월 16일 농림수산부에 시책건의하였다.

육류등급제의 기준은 생체중 한우는 550kg, 돼지는 110kg이상 수준에서 고품질 규격품이 생산되나, 한우는 장기 비육시 육량이 적어 등급판정에서 불리하므로 육량등급을 하향조정하고, 돼지는 생체중 100kg 수준에서 등급판정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110kg이상 수준에서 등급판정이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한우 고급육 생산 및 돼지고기의 수출규격품 생산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등급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육류등급제를 조기정착시키고 고품질 규격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고급육 생산 장려금과 수출용 돼지고기 사육농가에 지원되는 장려금도 현행 방법과 병행하여 거세한우 1등급에 두당 50만원과 내수용 거세돼지에게도 수출용과 같이 1두당 1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돼지 도체등급 개정(안)

	도체중량 kg (박피기계 기준)		등지방 두께 mm (박피기계 기준)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A	이상 미만 54~58 58~65 65~75	이상 미만 55~62 62~69 69~81	이상 미만 1~9 1~10 1~11	이상 미만 1~9 1~10 1~12
B	51~54 54~58 58~65 65~75 75~78	51~55 55~62 62~69 69~81 81~84	1~13 9~13 10~14 11~15 1~15	1~14 9~14 10~15 11~16 12~16
C	47~51 51~58 58~65 65~78 78~82	47~51 51~55 55~62 62~69 69~81 81~84 84~87	1~21 13~22 14~23 15~24 1~24	1~21 14~21 14~22 15~23 16~24 17~25 1~25
D	A, B, C, E에 속하지 않는 것	A, B, C 이외의 것	A, B, C, E에 속하지 않는 것	A, B, C 이외의 것
E	별도로 정하지 않음	좌 동	좌 동	좌 동

*탕박인력과 박피인력은 표시하지 않음(편집자 주).

환경처, 축산분뇨 방류수 수질기준도 대폭 강화 방침

-신고대상규모 BOD 1,500ppm에서 150~500ppm으로

환경처가 지난달 20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상 면적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사육두수도 추가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처는 현행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 SS 공히 150ppm 이하인 허가대상 양돈규모를 '96년부터 BOD, SS 공히 40~120ppm으로 대폭 강화하고, 대장균도 추가로 규제할 방침이다.

또 현행 BOD 1,500ppm 이하인 신고대상 양돈규모의 방류수 수질기준도 '96년부터 BOD 150~500ppm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5월 9일 가축분뇨자원화추진위원들과 협의를 갖고, 허가대상규모는 BOD와 SS를 50~150ppm으로, 신고대상규모는 BOD를 350~500ppm으로, 완화해 주도록 환경처에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이 마무리 되는대로 입법예고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축산폐수 정화시설 종류에 생물학적 처리방법과 초지·농경지에 액비를 이용하는 저장액비화 방법을 추가로 인정하고, 퇴비화·액비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시 분뇨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지정조건 부여 등 구체적인 절차와 처리기준도 정할 방침이다.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단위 : ppm)

	현 행		환경처 개정 방침	
	허가규모	신고규모	허가규모	신고규모
BOD	150이하	1,500이하	40~120	150~500
SS	150이하	-	40~120	-
대장균	-	-	추가규제	-

돈육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육의 저장성 향상

-냉장돈육, -1°C에서 40일 이상 저장 가능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유익종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0℃~2℃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냉장돈육의 저장온

도를 −1°C에서 저장하면 40일 이상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2~'93년 농림수산부와 축협의 협조하에 냉장육의 저장성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했던 유익종박사팀은 현재 0~2°C에서 28일간 저장가능한 냉장돈육을 −1°C로 저장하면 1.4배에 달하는 4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포장재 내부의 가스조성을 조절하면 −1°C에서 50일 이상 저장 가능하여 진공포장에 비해 저장가능 기간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장재질에 따른 저장기간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익종박사팀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대학, 육가공공장 등과 공동으로 실용화를 위한 현지적용 시험 및 응용연구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공장규모 실증시험을 통해 온도조건 및 포장기술 실용화 방안을 연구하고, 냉각시설장치의 사양 및 관련기술자료 확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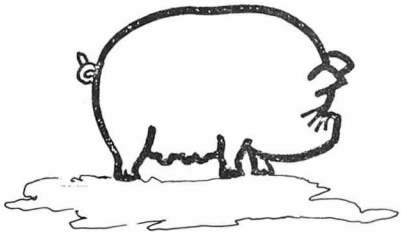
농림수산부, 가축질병예찰업무 강화

−종돈장 월 1회 이상 질병예찰 실시

농림수산부는 최근 가축 질병 발생과 관련,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종돈장 및 종계장에 월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는 등 가축질병예찰업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규정에 의한 예찰업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예찰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대양축가 홍보와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종돈장과 종계장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예찰요원들을 지역 분담별로 지원하고 예찰업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養豚

□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 권영방 교수의「전염성 위장염의 증상과 예방·치료대책」원고중 95쪽의 "~로 전돈군에~ 밝혀졌다〈표1, 2〉."는 "곧 회복되는~성돈 등의 순서" 뒤로 위치해야 하며 4. 임상증상은 가. 젖먹이 새끼돼지의 바로 위에 위치함이 옳기에 바로 잡습니다.